



4월28일
수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과	친환경농업과	과장	이정희	팀장	주경천	☎	286-6340
----	--------	----	-----	----	-----	---	----------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최대 30% 할인행사로 “착한 소비” 적극 홍보
- 호남권친환경농산물센터, 롯데마트 시작 온·오프라인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나서 -

전남도는 친환경농가에서는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안전한 전남친환경농산물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착한 소비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행사'를 28일부터 롯데마트 광주·전남 9개 매장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친환경농산물 할인 행사 차액비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초 전남도와 전남의 광역단위 생산 유통 산지조직인 호남권친환경농산물센터가 국비 3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는 전국 농협매장,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등에서 10억 원 상당의 전남 친환경농산물을 20~30%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친환경 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친환경농산물센터는 롯데마트와 상생협력해 28일부터 ▲광주 4개 점포(수완, 월드컵, 첨단, 상무) ▲전남 5개 점포(나주, 목포, 남악, 여수, 여천)에 메론, 대추방울, 양파, 감자, 애호박, 새송이, 깻잎, 상추 등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번 판촉행사는 오는 5월부터 친환경 유기농 전문브랜드 업체인 '초록마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농협몰'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급식 납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2,669개교 42만명에게 농산물 1,428톤, 160억원 공급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 등 다양한 판로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친환경과 안전먹거리 등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고정 고객 확보를 통한 소비처 확대를 위해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와 착한 소비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행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일반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인력과 생산비가 들어가지만, **전라남도 친환경농가는 국민에게 안심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판촉행사가 친환경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어 착한 소비활동이 확대 유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